

## 비행 발달과정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의 비교 연구: 잠재적 특성 시각과 생애과정 시각을 중심으로

이 상 문\*

### 국문요약

이 연구는 중기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의 이행과정에서 청소년의 비행 또는 범죄의 지속성과 변이성을 설명하는 두 가지 대비되는 시각을 고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연령 효과와 가정의 유대의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잠재적 특성 시각은 연령-범죄 곡선은 비행집단 내에서 다른 요인들과 무관한 특정한 유형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생애과정 시각은 연령-범죄 곡선은 비행의 시작 시기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한다. 잠재적 특성 시각은 비행의 원인은 개인의 범죄적 특성이므로 가정의 유대는 개인의 비행 궤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생애과정 시각은 약화된 가정의 유대가 비행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결과로 차후의 가정의 유대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비행의 궤적을 설명하는 주요한 원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종단적 연구자료 중 하나인 미국 National Youth Survey 자료에서 390명의 남자 청소년들을 선정하여 표본으로 이용하였다. 연령 효과에 관한 이 연구의 결과는 비행의 시작 시기는 비행의 궤적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이 됨을 제시하고 있으나 특정한 연령 효과도 존재함을 나타낸다. 가족의 유대에 관한 이 연구의 결과는 생애과정 시각을 지지함을 밝히고 있다. 특히, 가족의 유대의 효과는 비행 초기시작 집단보다 비행 후기시작 집단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 영산대학교 법경대학 경찰행정학과 전임강사

## I. 서론

최근 범죄학자들은 개인의 삶의 과정에서 비행이나 범죄의 지속성과 변이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력 범죄자(career criminal)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경험적인 연구들은 10%이하의 소수의 범죄자들이 전체 범죄의 반 이상을 저지르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Wolfgang et al., 1972; Wilson and Herrnstein, 1985). 따라서 경력 범죄자들이 되는 원인과 그 과정에 대한 논의는 범죄학뿐만 아니라 범죄 통제를 위한 형사 정책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경력 범죄자에 대한 논의는 연령과 범죄와의 관련성과 범죄의 지속 과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오게 하였다.

범죄는 개인의 삶의 과정 전체에서 유사한 빈도나 참여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경험적 연구들은 비행이나 범죄는 초기 청소년기에 급격히 증가하여 16세와 18세 사이에 정점을 이룬 후 점차 감소하는 유형이 나타남을 제시하고 있다(Hirschi and Gottfredson, 1983; Farrington, 1986; Elliott et al., 1989). 대부분의 학자들이 연령에 따른 비행이나 범죄의 집합적 분포의 일반적인 유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비행이나 범죄의 집합적 분포내의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는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연령-범죄곡선(age-crime curve)은 시간, 공간, 범죄 유형, 인구학적 특성과 무관한 특정한 유형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학자들은 비행이나 범죄의 집합적 분포 내에는 개인의 행동특성, 성장 시기, 사회적 영향에 의한 개인들의 변이가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Farrington, 1992; Moffitt, 1993; Thornberry, 1987; Sampson and Laub, 1993).

이 연구의 목적은 범죄의 지속성과 변이성의 논의에 대한 두 가지 대비되는 시각을 바탕에 두고 연령의 변화에 따른 비행 과정을 검증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주제에 관해서는 이미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많은 연구들이 비행이나 범죄의 증가나 확대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 시기의 비행이나 범죄의 감소 과

정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시기의 비행이나 범죄에 대한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행이나 범죄의 감소 경향에 대해서 개인적 행동특성으로서의 비행시작 시기와 사회적 통제기체로서의 가족의 유대가 어떠한 변이나 관련이 있는 지에 대해 두 가지 대비되는 시각을 검증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비행의 지속성에 대한 두 가지 시각

학자들은 청소년의 생애 과정을 통한 비행이나 범죄행동의 연속성 혹은 발달과정을 두 가지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다(Nagin and Paternoster, 1991; Paternoster et al., 1997). 첫 번째는 생애 초기에 확립된 잠재적인 범죄 특성은 전 생애에 걸쳐 상대적으로 지속적이며, 비행이나 범죄를 지속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는 잠재적 특성(latent trait) 시각이다. 범죄 특성(criminal propensity) 혹은 범죄성은 생물학적 요인이나 인성적 요인(Wilson and Herrnstein, 1985) 또는 양육과정의 문제(Gottfredson and Hirschi, 1990)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특성을 가진 개인은 청소년 비행 집단 내에서 구별되는 다른 행동 유형을 지닌다. 그래서 잠재적 특성 시각을 집단 이질성(population heterogeneity)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Nagin and Paternoster, 1991). 여러 잠재적 특성 시각의 이론들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는 자아통제 이론(self-control theory)이다(Gottfredson and Hirschi, 1990). 이 이론은 비행이나 범죄의 원인이 개인의 낮은 자아통제력(self-control)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즉, 자아통제력이 낮은 개인은 충동적이며, 위험을 추구하며, 근시안적이므로 자신의 즉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잠재적 특성의 하나로써 자아 통제력은 어린 시절 형성되어 잘 변화하지 않고 생애주기를 통해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특성이 된다.

자아통제이론은 생애 지속적인 잠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비행이나 범

죄의 연령별 분포가 다른 이유는 범죄(crime)와 범죄성(criminality)이 구별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범죄는 개인의 범죄성과 개인적 상황 또는 사회적인 기회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에서 비행이나 범죄의 정도가 동일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비행이나 범죄는 초기나 중기 청소년기에 정점을 이루다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개인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기회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령에 변화에 따른 비행이나 범죄의 변화 요인은 개인의 성장으로 인한 성숙적 개선(maturational reform)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Gottfredson and Hirschi, 1990: 134-141). Gottfredson과 Hirschi는 연령의 변화에 따른 비행이나 범죄의 분포가 매우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연령효과(age-effect)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처럼 잠재적 특성 시각은 개인의 생애 지속적인 특성이 비행이나 범죄의 원인이 되지만 개인적 상황이나 사회적 기회에 의한 변이성 또한 존재함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비행이나 범죄가 개인의 삶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 가속화되거나 억제된다고 보는 생애과정(life-courses) 시각이다.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주요한 사회환경적 요인은 직장이나 결혼과 같은 생애 사건(Sampson and Laub, 1993), 가족 간의 유대의 변화(Thornberry, 1987), 비행 친구들과의 교제(Elliott and Menard, 1996) 등이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비행이나 범죄가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인과적 또는 연속적으로 변화한다. 그러므로 생애과정 시각을 상태 의존(state dependence) 이론으로 부르기도 한다(Nagin and Paternoster, 1991). 여러 생애과정 시각의 이론들 중 잘 알려진 하나는 비공식 사회통제의 연령등급 이론(age-graded theory of informal social control) 이다(Sampson and Laub, 1993). 이 이론은 개인의 일생에서 비행이나 범죄의 변이는 비공식 사회통제의 기제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즉,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가정, 학교, 친구집단 등의 비공식적 사회유대 기제의 약화가 비행이나 범죄를 발생시키며, 또한 비공식적 사회유대의 영향에 의해 비행이나 범죄가 지속되거나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행이나 범죄의 생애 지속성은 어린 시절의 반사회적 행동의 지속이 가족의 유대를 감소시키며 학교에서의 부적응과 친구 관계도 악화시켜 청소년기에는 비행을 성인기에 들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누적적 지속(cumulative continuity)'에 의한 연속적인 현

상을 의미한다(Sampson and Laub, 1993:123-125). 반면, 이 이론은 만성적인 비행 청소년이나 경력 범죄자도 직장이나 결혼과 같은 관습적인 사회유대의 복원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생애과정 시각은 비행 혹은 범죄 과정의 지속성과 그 변이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 2. 비행의 시작시기의 차에 따른 행동의 특성

비행이나 범죄의 지속성과 변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는 행동의 시작 시점이다. 생애과정 연구들은 비행이나 범죄행동을 설명하는데 최소한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집단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Patterson et al., 1992; Moffitt, 1993). 하나의 유형은 어린 시절 반사회적 행동을 시작하여 생애 지속적으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을 일컫는다. 이러한 집단을 Patterson은 '초기 시작자(Early starter)' 그리고 Moffitt은 '생애 지속형(life-course persistent)'이라고 부른다. 다른 하나의 유형은 청소년기에 비행을 시작하다가 성인기에 들어가며 그만두는 집단을 일컫는다. 이러한 집단을 Patterson은 '후기 시작자(late starter)' 그리고 Moffitt은 청소년기 제한형(adolescence-limited)'이라고 부른다. 초기 시작자 또는 생애 지속형을 설명하는데 있어 Patterson과 Moffitt은 반사회적 행동의 초기 시작 원인을 부적절한 사회화 과정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된 관점에도 불구하고 두 논의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Patterson의 이론은 유년시절의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Patterson et al., 1989; 1992). 이 이론에 따르면 어린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부적절한 훈육과정과 아이들의 고압적 행동(coercive behavior)간의 상호작용이 자녀들의 반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킨다고 주장한다. 만약 어린 자녀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반항, 짜증, 싸움 등의 문제행동을 보일 때 부모들이 일관성 있는 태도를 나타내지 않고 그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자신들의 즉각적인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고압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며 나아가 부모의 반응을 조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강화(reinforcement)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문제행동은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며 반사회적 행동으로 발달하게 된다. Moffitt의 이론은 개인의 신경심리적(neuropsychological) 특성과 이에

대한 환경적인 반응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Moffitt, 1990; 1993). 이 이론은 유아의 뇌기능 장애가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태아의 뇌기능 장애, 어머니의 약물남용, 태아기 혹은 출생 후의 약물에 노출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아의 신경심리적 장애는 언어장애나 행동장애로 표출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개인은 부모와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초기 행동장애가 반사회적 행동과 비행 나아가 범죄로 발달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이론은 유년기의 인성적 또는 신경심리적 문제가 가정에서의 사회화 과정에 문제를 가져오며 반사회적 행동 유형의 내면화는 개인의 사회성 발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즉, 사회화 과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 입학해서 학습능력의 부족과 사회관계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학업의 실패와 동년배 집단으로부터 거부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져 문제행동과 비행이 조장될 가능성이 커진다(Patterson and Yoerger, 1993; Caspi and Moffitt, 1995).

후기 시작자 혹은 청소년기 제한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두 학자들은 유사한 설명을 하고 있다. 청소년중기 혹은 말기에 비행을 시작하는 집단은 환경적 문제 혹은 청소년기 성장과정의 영향에 의해 비행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다. Patterson과 그의 동료들(1992)은 청소년기에 있어서 부모의 불화, 거주지의 이동, 부모의 실직과 같은 생애 사건에 의한 가정의 혼란으로 인한 부모의 통제의 약화가 비행청소년들과의 교제를 일으키게 되며 그 결과로 비행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Moffitt(1993)은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물학적 연령과 사회적 연령간의 성장의 차이(maturity gap), 이를테면 신체는 성인이지만 사회적으로 부모나 학교의 권위에 순응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조화, 때문에 그 반감으로 비행을 저지르며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이론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초기 비행 시작 집단과의 차이점은 유년시절 가정에서의 사회화는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반사회적 성향은 없고 학교나 친구들과로부터의 사회적 거부는 당하지 않으므로 비행은 청소년기에 한정되어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이 보다 성숙되어 감으로써 비행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인식하게 되어 비행을 점차 중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 3. 가족 유대의 영향

범죄학자들은 가족을 비행이나 범죄 발달 과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족의 영향이 비행이나 범죄를 조장하는 위험 요인인 동시에 억제할 수 있는 통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Loeber and Stouthamer-Loeber, 1986; Catalano and Hawkins, 1996; Farrington, 2002). 위험 요인은 가족 구성원들이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비행이나 범죄의 사회화(Patterson, 1982; Wahler and Dumas, 1984), 부모의 감독 부재로 인한 자녀들의 비행 또는 범죄(Glueck and Glueck, 1950; McCord, 1979; Farrington and Loeber, 1999), 부모의 가혹하거나 일관성 없는 훈육방법(West and Farrington, 1973), 가족 간의 갈등(Farrington and Loeber, 1999) 등이 될 수 있다. 반면에 가족은 청소년 비행을 억제하는 통제 요인이 되기도 한다(Hirschi, 1969; Kornhouser, 1978; Sampson and Laub, 1990). Hirschi(1969)의 사회유대 이론(social bond theory)은 통제의 기제로써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와 관습적 제도에 유대가 강한 청소년일수록 이탈과 범죄를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제시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사회와의 유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부모와의 유대이다.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인 유대는 사회적 통제의 가장 근본적이며 중요한 근원이 된다. 청소년들의 친사회적인 태도와 행동의 내면화는 부모와의 정서적인 유대에 의해 사회화되며, 부모와의 유대가 강한 청소년일수록 사회적 규범을 더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유대 이론의 경험적 연구들에 대한 결과는 다양하다. 어떤 연구 결과들은 청소년 비행에 대한 부모 유대의 직접적 영향은 약하거나 또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제시하고 있다(Agnew, 1985, 1991; Elliott et al., 1985; Paternoster, 1988). 이러한 일관적이지 않는 결과들은 잠재적 특성 시각과 생애과정 시각의 차이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잠재적 특성 시각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개인의 특성은 생애 과정에서 잘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Bushway et al., 1999; Nagin and Paternoster, 1991). 가족의 유대가 자녀들의 사회화 과정을 반영한다면, 유년기 때 부모와 자녀간의 가족의 유대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비행과 범죄를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와 성인기 시기의 가족의 유대는

비행과정의 변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Cernkovich and Giordano, 2001). 결과적으로, 잠재적 특성 시각은 비행이나 범죄의 원인은 유년기에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안정된 개인의 특성에 의한 것이므로, 청소년기에 가족의 유대는 비행이나 범죄를 설명하는 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는 반대로, 생애과정 시각은 가족의 유대가 비행이나 청소년기의 범죄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주장한다(Sampson and Laub, 1990, 1993; Simons et al., 1998). 가족의 유대는 비행이나 범죄 성장과정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줄 수 있다. 먼저, 가족의 유대는 비행이나 범죄의 지속적 성장 과정의 직접적인 설명 요인이 된다. 가족의 유대의 약화가 자녀들의 비행이나 범죄를 일으키게 하며, 그 결과 다시 가족의 유대를 더욱 약화시키는 순환적인 관련성이 나타날 수 있다(Thornberry, 1987). 또한, 가족의 유대는 다른 요인들과 상호작용하거나 간접적으로 자녀들의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족의 유대 약화는 청소년들이 다른 비행 청소년들과의 직접적인 교제나 상호작용을 통한 비행 태도의 학습을 하게 됨으로 비행으로 발전할 수 있다(Elliott et al., 1985). 생애과정 시각은 가족의 유대가 비행이나 범죄의 발달 과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 4. 연구 가설

앞에서 제시된 논의에 따른다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시 연령과 비행 또는 범죄와의 관계는 두 가지 대비되는 시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잠재적 특성 시각은 연령에 대한 비행이나 범죄의 분포는 특정한 분포 형태-J 자의 역의 모양-를 가지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 범죄 유형, 사회적 영향에 따라 변화 없는 특정한 연령 효과(age-effect)가 있음을 주장한다(Gottfredson and Hirschi, 1990). 두 번째, 생애과정 이론은 범죄의 시작 시기나 사회적 영향 등에 의해 다른 비행 또는 범죄 발달 궤적을 가진다고 주장한다(Patterson et al., 1992; Moffitt, 1993 Sampson and Laub, 1993). 예를 들어, Moffitt(1993)은 생애지속형 집단은 연령의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을 나타내는 반면에, 청소년기 제한형 집단은 잠재적 특성의 시각과 유사한 분포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두 가지 대비되는 논의에 의해 다음과 같은 가정이 도출될 수 있다: 첫 번째, 비행 시작 시기의 차에 의한 범죄 성향(criminal propensity)의 변이에 대한 가정이다. 연령의 효과가 보편적인 특성이라는 Gottfredson과 Hirschi의 논의를 따른다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 시 비행의 궤적은 개인의 범죄적 성향에 의한 차이가 없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반면에, 생애과정 시각의 논의를 따른다면 비행의 발달 과정은 범죄적 성향에 따라 다른 궤적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초기시작 집단은 지속적인 비행이나 범죄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비행의 감소 비율이 후기시작 집단보다 더 낮다고 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부모와의 애착으로 대표되는 가족 유대의 영향에 대한 가정이다. 잠재적 특성 시각을 따른다면, 범죄의 원인은 개인의 특성에 의한 것이므로 이 변인이 통제된다면 가족 유대의 영향력은 사라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생애과정 시각은 비행의 발달과정과 가족의 유대는 상호 작용하는 관계임을 제시하고 있다(Thornberry, 1987; Sampson and Laub, 1993). 가족 유대의 약화가 비행이나 범죄를 가져오게 하며 그 결과 다시 이후의 가족 유대에 다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인 인과 과정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자료와 표본

개인의 성장에 따른 청소년 비행의 변화과정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 특히 패널 연구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자료가 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청소년 비행에 관한 잘 알려진 패널 연구 자료가 몇몇 있으나 이 또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거나 조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청소년기 전체의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는데 사용된 자료는 미 전국 청소년 조사(NYS: The National Youth Survey)이다. NYS는 미 전국 규모의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76년부터 1987년까지 10년이 넘는 측정기간을 가지고 있다. 비록 우리의 실정을 대표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본 연구의 가설 검증에 적합한 자료라 볼 수 있다.

NYS 자료는 1976년 미국 전체 가정에 대해서 다단계 집락 표집틀(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이용한 확률 표집을 통해 1,725 명의 표본이 패널로 선정되었다. NYS 자료는 이 표본 패널에 대해서 1976년, 1977년, 1978년, 1979년, 1980년, 1983년, 1987년의 7번에 걸친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표본의 응답율은 1983년까지 자료에서는 87%였으며, 1987년 최종 자료는 71%(1,227 명)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표본 선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첫째, NYS 전체 패널들의 하위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그 이유는 전체 표본패널의 연령분포가 1976년 당시 11세부터 17세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 전체 변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초기 청소년기를 대표할 수 있는 낮은 연령의 동기자(cohort)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둘째, NYS 전체 시기의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1977년, 1980년, 1983년, 1987년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NYS 자료는 각 측정 시기마다 약간씩 다른 조사 문항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의 일관성과 조사기간의 균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시기의 자료들을 선택 하였다. 셋째, NYS의 패널은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여자 청소년의 비행의 빈도(incidence)와 참여(prevalence)가 남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성별과 비행 시기를 분류하게 되면 여자 청소년의 사례 수가 더 적어져 유의적인 표본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표본은 390명의 남자 청소년으로 구성되었다. 표본의 연령 분포는 1977년을 기준으로 127명(32.6%)의 12세 집단, 128명(32.8%)의 13세 집단, 그리고 135명(34.6%)의 14세 집단으로 이루어졌다. NYS 자료는 인종의 분류를 '앵글로', '흑인', '스페니시', 아메리카 인디언', '동양계', 그리고 '그 외 인종'으로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299명(76.7%)의 백인계 인종과 91명(23.3%)의 비백인계 인종인 이분적인 변인으

로 구성하였다. 표본의 거주 지역은 107명(27.4%)의 농촌지역, 175명(44.9%)의 도시교외지역, 그리고 108명(27.7%)의 도시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다. NYS 자료는 연 평균 가구의 소득을 1=\$6,000 이하, 2=\$6,001 - \$10,000, 3=\$10,001 - \$14,000, 4=\$14,001- \$18,000, 5=\$18,001 - \$22,000, 6=\$22,001-\$26,000, 7=\$26,001- \$30,000, 8=\$30,001-\$34,000, 9=\$34,001-\$38,000, 10=\$38,001 이상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연구의 표본의 평균은 4.03이었다.

## 2. 변수의 측정

NYS 자료는 청소년의 비행을 심각한 폭력(felony assaults), 사소한 폭력(minor assaults), 강도(robbery), 심각한 절도(felony theft), 사소한 절도(minor theft), 기물손괴(vandalism), 약물사용(drug use)의 구체적인 위반(offense-specific) 척도와 불법적인 서비스(illegal service), 공공질서 위반(public disorder), 지위위반(status offenses), 대인범죄(crime against persons), 일반절도(general theft)의 일반 범주(offense-category) 척도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Elliott et al., 1985; 1989). 이 연구에서는 심각한 폭력, 사소한 폭력, 강도, 심각한 절도, 사소한 절도의 5가지 구체적 위반 척도와 불법 서비스, 공공질서/지위 위반의 2가지 일반 범주 척도를 통해 비행을 측정하였다. 각 척도는 3 또는 4 가지의 비행에 관한 질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0=전혀 하지 않았다' 에서부터 '8=하루에 두세 번'까지의 범위를 가지도록 구성되었다. 청소년 비행은 각 척도의 문항들을 행동성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평균값으로 측정되었고, 총 7가지 척도를 다시 심각성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그 평균값으로 측정되었다.

개인의 행동 특성은 비행 시작시기의 차에 따라 분류되었다. 비행 초기시작 집단과 후기시작 집단의 명확한 시기의 구분은 임의적인 것이지만, 선행적 연구들의 경우 보통 13세 또는 14세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비행을 시작하는 집단을 초기시작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Patterson et al., 1991; Patterson and Yoerger, 1993; Simons et al., 1994).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첫 번째 측정 시기에 비행을 시작한 집단을 초기시작 집단으로 그 이후에 비행을 시작하는 집단을 후기시작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측정시기에서 비행의 범위는 0에서 28.17까지인데, 이 연구에서는 1 이하의 경미한 점수는 비행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따라서 초기시작 집단은 첫 번째 측정시기에 1 이상의 비행 점수를 가진 개인이며, 후기시작 집단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기에 비행을 시작한 집단으로 정의된다. 표본은 비행 초기시작 집단: 152명(39.0%), 후기시작 집단: 135명(34.6%),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집단: 57명(14.6%)으로 구성되었으며, 나머지 46명(11.8%)은 탈락 자료(missing data)이다.

가족의 유대는 응답자들이 부모들과 얼마만큼 친밀한가를 통해 측정되었다. 가족 유대의 척도는 부모의 영향에 대한 중요성, 가족 간의 활동의 중요성, 부모의 온정적 정도, 부모의 지원 정도를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의 유대는 이 네 문항의 평균값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1=정말 그렇지 않다'에서 '5=정말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또한 변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유대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도록 측정되었다. 각 문항의 내적 일관성 계수 Cronbach's alpha는 중기 청소년기에 .69, 말기 청소년기에 .81, 그리고 초기 성인기에 .81로 나타났다.

### 3. 분석 방법

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McArdle and Bell, 2000). 첫 번째는 전통적인 자기회귀(autoregressive) 모델이다. 이 모델은 특정 시점에서 변인들 간의 관계가 그 이전 시점의 변인들 간의 관계에 의해 회귀됨으로써 시점의 변화에 따른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게 해준다. 이 모델은 변인의 이전 시점과 이후 시점 간에 대한 평균점수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는 간접함으로 인해 기존의 패널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자기회귀 모델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비행이나 범죄의 궤적을 정확히 측정하는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자기회귀 모델은 한 시점에서 변수의 측정치가 단지 이전 시점의 변수(들)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측정 시기가 세 번 이상인 패널 자료의 경우 실제 변화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는 잠재적 성장곡선(latent growth curve) 모델이다.<sup>2)</sup> 이 모델은 시점

의 변화에 따른 패널 개인들의 비행이나 범죄의 변이를 절편(intercept)과 기울기(slope)라는 잠재적 구조(latent structure)로 나타내어 개인 내(within-individual) 행동의 변화 유형과 이러한 변이에 따른 개인 간(between-individual)의 차이점을 고찰할 수 있게 해준다(Rogosa et al., 1982; Meredith and Tisak, 1990; Willet and Sayer, 1994; Muthén and Khoo, 1998).<sup>3)</sup> 특히, 잠재적 성장곡선 모델은 시점의 변화에 따른 변인의 시작 정도(initial level)와 그에 대한 궤적 변화를 추정함으로써 변화와 지

- 2) 성장곡선은 다차원(multilevel) 모델 분석 방법(Raudenbush and Bryk, 2002)에 의한 복합선형(mixed linear) 모델에 의해서도 분석될 수 있으나, 구조방정식을 통해 성장곡선을 추정하는 모델은 잠재적 성장곡선 모델이라고 불린다.
- 3) 잠재적 성장곡선 모델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Y = \tau_y + \Lambda_y \eta + \epsilon_i$$

여기서,  $Y$ 는 시간의 변화에 따르는 개인의 관찰된 비행이나 범죄를 나타내는 벡터이며,  $\tau$ 는 절편의 벡터,  $\Lambda$ 는 요인 적재(factor loading) 행렬을 의미하며,  $\eta$ 는 성장의 속성을 나타내주는 성장 모수(parameter) 행렬이며,  $\epsilon$ 는 특정 시간과 관련된 오차의 벡터를 의미한다. 여기서 성장모수는 성장 과정에서 개인의 차이를 두 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첫째, 개인에 따라 비행이나 범죄의 시작 정도(initial status)의 차가 존재하는데, 이를 통계학적 용어로 무작위 절편(random intercept)이라고 표현한다. 둘째, 개인의 성장과정에 따라 비행이나 범죄의 변화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이를 통계학적 용어로 무작위 기울기(random slope)이라고 한다. 이 두 부분을 통해 비행이나 범죄의 시작 정도의 평균치, 성장 비율의 평균치, 개인의 시작 정도의 평균치와 성장 비율의 평균치의 개인 간의 변이를 측정할 수 있다. 잠재적 성장곡선 모델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비행이나 범죄의 궤적(trajectories)을 고찰하기 위해 이 두 부분을 구조방정식 모델의 잠재적 변수(latent variable)로 구성한다. 하나는 개인의 시작 정도( $\eta_1$ )를 나타내며 다른 하나는 성장비율의 변화( $\eta_2$ )를 나타낸다.  $\Lambda$ 행렬은 두 잠재변수에 대한 반복된 측정시간의 변화 ( $y_{11}, y_{12}, y_{13}, \dots, y_{1k}$ , 여기서  $t$ 는 기간)를 나타내는 다중 지표들(multiple indicators)로 구성되는데, 비행의 시작과 변화 값을 나타내고 있다. 비행이나 범죄 시작 정도의 변이, 즉 절편(intercept)은 각 측정치를 1로써 고정된(fixed) 요인 적재(factor loading)로 나타낸다( $\lambda_{11}, \lambda_{21}, \lambda_{31}, \dots, \lambda_{k1}$ ). 반면, 비행이나 범죄의 변화율, 즉 기울기(slope)는 각 측정치의 시간의 변화 정도에 따라 선형적 기울기의 변화를 나타내는 (예를 들어, 3번의 동일한 시간 간격의 측정은, 0, 1, 2의 인위적 적재 값을 부여한다) 요인 적재(factor loading) 값으로 구성된다( $\lambda_{12}, \lambda_{22}, \lambda_{32}, \dots, \lambda_{k2}$ ). 어떤 한 응답자의 비행이나 범죄가 3번의 기간 동안 측정되었다면 그 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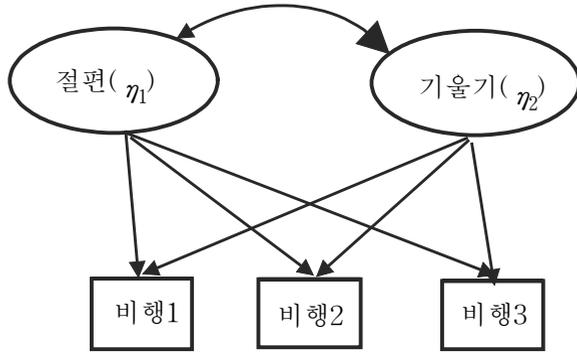
속성에 관심을 두는 생애과정 이론의 검증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비행 시작 시기의 차에 따른 비행 궤적의 차이와 각 측정 시기에 마다가족유대가 비행에 어떠한 변이를 주는가에 대한 가설 검증을 위하여 두 가지 분석 모델이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초기시작 집단과 후기시작 집단의 비행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 잠재적 성장곡선 모델을 설정하였다. 두 집단 간의 모델 비교를 통해 비행의 궤적이 유사하게 감소한다면 보편적인 연령효과가 존재한다는 잠재적 특성 시각의 가정을 지지하는 것이며, 비행의 궤적에 차이를 보인다면 생애과정 시각의 가정을 더 지지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 모델을 통해 두 집단의 비행의 궤적뿐만 아니라 가족 유대의 변이도 살펴 볼 것이다.

둘째, 초기시작 집단과 후기시작 집단의 비행 과정에서 각 측정 시기마다의 가족 유대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기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자기회귀 모델은 먼저 연령, 인종, 지역, 수입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 각 측정 시기마다 가족유대가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경로계수와 비행의 결과가 차후의 가족 유대에 영향을 나타내는 경로계수를 설정하였다. 만약 가족유대의 영향이 없다면 잠재적 특성 시각의 가정을 지지하는 것이며, 비행 과정에서 다양한 가족유대의 영향이 존재한다면 생애과정 시각의 가정을 더 지지하는 것이다. 가설 검증을 위한 두 모델의 추정치는 구조방정식 프로그램인 LISREL 8.51(Jöreskog and Sörbom, 2001)과 Mplus 3.13(Muthén and Muthén, 2005)을 통해서 계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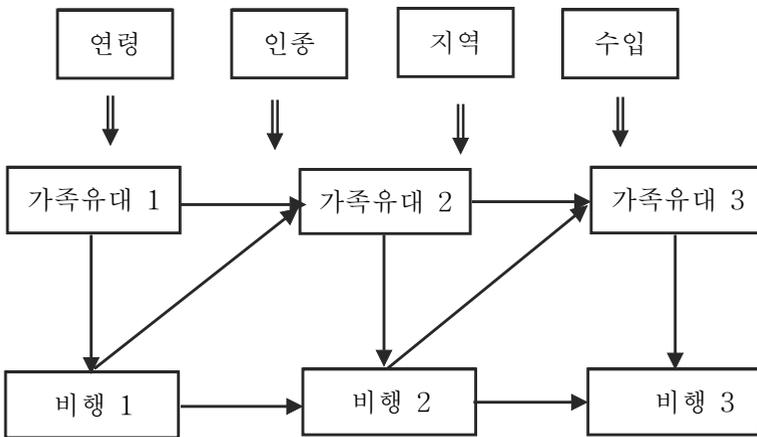
$$\begin{bmatrix} y_1 \\ y_2 \\ y_3 \end{bmatrix} = \begin{bmatrix} \tau_1 \\ \tau_2 \\ \tau_3 \end{bmatrix} + \begin{bmatrix} 1 & t_1 \\ 1 & t_2 \\ 1 & t_3 \end{bmatrix} \begin{bmatrix} \eta_1 \\ \eta_2 \end{bmatrix} + \begin{bmatrix} \epsilon_1 \\ \epsilon_2 \\ \epsilon_3 \end{bmatrix}$$

성장과정에 따른 개인 내 행동변화 중에서 개인 간의 차이는 비행이나 범죄의 시작 정도와 변화 두 잠재변인의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시작 정도 모수의 모평균은 개인들의 비행이나 범죄 시작의 평균치를 의미하며 시작 정도 모수의 모분산은 개인들의 비행이나 범죄 시작의 이산성(heterogeneity)을 나타낸다. 변화 비율의 모평균은 개인들의 시간 변화에 따른 변화된 평균을 나타내며, 변화 비율의 모분산은 변화 비율의 개인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sup>a</sup> 타원형은 잠재적 변수(latent variable)를 의미하며, 사각형은 측정 변수(observed variable)를 의미한다. 두 잠재적 변수 간의 두 방향 화살표는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측정변수들의 오차항과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는 이 그림에서 생략되었다.

<그림 1> 비행의 잠재적 성장곡선모델<sup>a</sup>



<sup>b</sup> 두 줄 화살표시는 연령, 인종, 지역, 수입 변수들은 각 시기의 가족유대와 비행에 영향을 줌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령, 인종, 지역, 수입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표시는 이 그림에서 생략되었다. 각 시기의 가족유대와 비행의 오차항과 오차항간의 상관관계는 이 그림에서 생략되었다.

<그림 2> 가족 유대와 비행의 자기회귀모델<sup>b</sup>

## IV. 결 과

<표 1>에서는 각 성장단계에서 비행과 가족의 유대가 위반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나타내는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위반유형에 따른 비행의 차이를 살펴보면, 초기시작 집단이 후기시작 집단보다 중기 청소년기(4.45 대 2.20,  $t=3.29$ )와 말기 청소년기(3.36 대 1.89,  $t=3.14$ )에서 비행의 정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초기 성인기의 경우 초기시작 집단의 비행정도가 후기시작 집단보다는 높지만  $p < .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위반유형에 따른 가족의 유대의 정도를 살펴보면, 전 측정시기에 걸쳐 후기시작 집단의 가족의 유대 정도가 초기시작 집단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p < .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없다. 즉, 두 집단 간의 가족 유대 정도의 차이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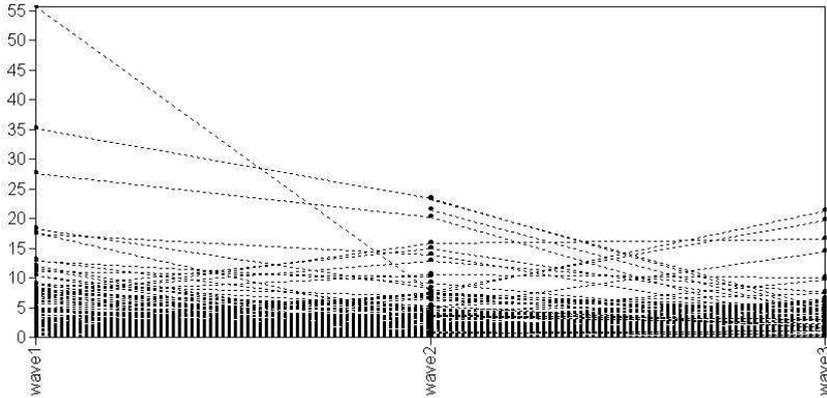
<표 1> 위반유형과 성장단계에 따른 비행과 가족유대의 기술 통계

	중기 청소년기			말기 청소년기			초기 성인기		
	초기	후기	t값	초기	후기	t값	초기	후기	t값
비행									
N	128	146		125	146		116	121	
평균	4.45	2.20	3.29**	3.36	1.89	3.14**	2.65	1.95	1.67
표준편차	6.95	3.58		4.75	2.44		3.70	2.54	
가족유대									
N	125	147		112	133		71	82	
평균	4.03	4.17	-1.91	4.00	4.15	-1.67	4.09	4.09	-.025
표준편차	0.60	0.58		0.72	0.67		0.72	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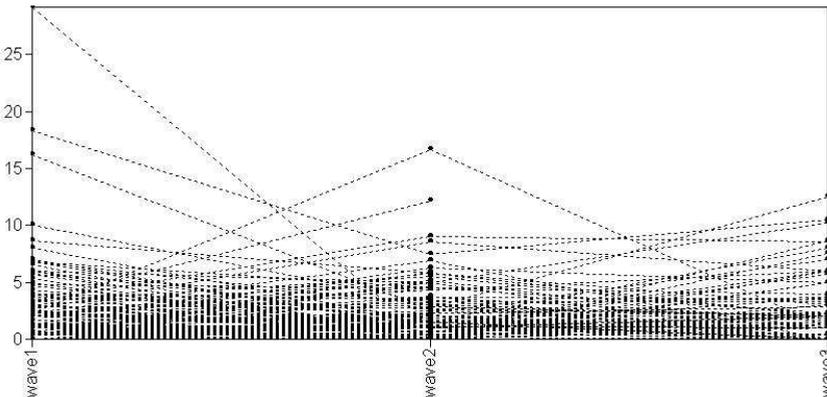
\*\*  $p < .001$ . \*  $p < .05$

<그림 3>과 <그림 4>에서는 위반유형에 따른 표본의 개인 내 비행의 변이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비행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기시작 집단과 후기시작 집단 모두 대체적으로 중기청소년기에서부터 점차 비행의 정도가 적어짐을 나타낸다. 그러나 <표 1>에 제시되었듯이 초기시작 집단의 비행의 정도는 후기시작 집단보다 중기 청소년기와 말기 청소년기에 높다. 청소년의 비행과 가족유대의 변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표 2>

에는 비행과 가족의 유대에 대한 잠재적 성장곡선 모델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3> 초기시작 집단의 비행의 변이



<그림 4> 후기시작 집단의 비행의 변이

비행에 대한 잠재적 성장곡선 모델을 살펴보면, 초기시작 집단과 후기 시작 집단의 모델 적합도 지수인 카이제곱 값(각각 0.82, 0.78)과 RMSEA 값(각각 0.00, 0.00)은 모델이 자료에 매우 잘 부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중기 청소년기부터 초기 성인기까지의 비행의 개인 내 변화가 선형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초기시작 집단 모델의 절편(intercept)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평균값(4.46,  $t=7.69$ )과 분산 값(29.46,  $t=4.80$ )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초기시작 집단 내 각 개인들의 비행

시작 정도(initial level)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시작 집단 모델에서 비행의 기울기(slope)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평균값을 나타낸다(-0.32,  $t=-3.23$ ). 이는 중기청소년기에서 초기성인기 사이의 개인 내 비행정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울기의 분산 값(0.39,  $t=1.58$ )은  $p < .05$  수준에서 유의적이지 않는데, 이는 비행의 변화비율이 개인들 간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초기시작 집단의 비행 궤적은 매우 유사한 유형을 가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2> 위반유형에 따른 비행과 가족유대의 잠재적 성장곡선 모델

	초기시작 집단		후기시작 집단	
	비행	가족 유대	비행 <sup>a</sup>	가족 유대
절편(intercept)				
평균	4.46	4.01	2.08	4.18
t값	7.69 **	77.02 **	8.60 **	89.55 **
분산	29.46	0.17	6.43	0.23
t값	4.80 **	2.17 *	4.32 **	3.50 **
기울기(slope)				
평균	-0.32	0.00	-0.03	-0.01
t값	-3.23 **	-0.22	-0.55	-1.23
분산	0.39	0.00	0.56	0.00
t값	1.58	0.02	3.09 **	0.90
절편과 기울기의 공분산				
t값	-3.30	0.01	-1.67	-0.01
	-3.08 **	0.80	-3.32 **	-0.43
모델 적합도				
$\chi^2(df)$	0.82(1)	0.43(1)	0.78(0)	0.06(1)
p값	p=0.37	p=0.51	p=1.00	p=0.81
RMSEA	0.00	0.00	0.00	0.00

후기시작 집단 모델에서 절편의 평균값(2.08,  $t=8.60$ )과 분산 값(6.43,  $t=4.32$ )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초기시작 집단 모델과 마찬가지로 개인 간의 비행 시작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후기시작 집단 모델에서 비행의 기울기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후기시작 집단의 비행정도의 변화는 초기시작 집단의 경우와 다르게 특정한 변화의 유형이 없음을 제

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의미한 분산 값(0.56,  $t=3.09$ )은 개인들 간에는 정도의 변화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비행의 유형에 대한 잠재적 성장곡선의 절편과 기울기간에 부적의 공변이가 초기시작 집단(-3.30,  $t=-3.08$ )과 후기시작 집단(-1.67,  $t=-3.32$ )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두 집단 모두 비행의 시작 정도가 높은 개인일수록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행의 정도가 더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초기시작 집단의 가족 유대와 비행의 자기회귀모델(N=135)

예측 변수	응답 변수					
	유대 1	비행 1	유대2	비행2	유대3	비행3
연령	-0.11	0.12	0.16 *	-0.11	-0.13	0.06
인종	0.17	-0.05	0.23 *	0.01	0.11	-0.18
지역	0.06	0.21 *	-0.30 **	0.10	-0.05	0.05
수입	0.06	-0.06	0.05	-0.08	0.04	0.02
유대1		-0.27 **	0.53 **			
비행1			-0.02	0.57 **		
유대2				-0.07	0.27 *	
비행2					-0.07	0.27 **
유대3						-0.15

인종(0= 백인, 1=비백인), 지역(-1=농촌, 0=도시근교, 1=도시)

$\chi^2(3)=1.34(p=.72)$ , RMSEA=0.00

\*  $p<.05$ , \*\*  $p<.001$

가족의 유대에 대한 잠재적 성장곡선 모델을 살펴보면 초기시작 집단과 후기시작 집단은 큰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적합도 지수는 두 모델 모두 자료에 잘 부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두 모델 모두 절편의 평균(초기시작 집단: 4.01,  $t=77.02$ ; 후기시작 집단: 4.18,  $t=89.55$ )과 분산 값(초기시작 집단: 0.17,  $t=2.17$ ; 후기시작 집단: 0.23,  $t=3.50$ )만이 유의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두 집단 모두 개인 간에 가족유대 정도의 차이만 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개인 내 유대 정도의 변화는 거의 없음을 나타낸다.

<표 3>과 <표 4>는 연령, 인종, 지역, 수입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 후 각각 초기시작 집단과 후기시작 집단의 가족유대와 비행 간의 관계를 표준화된 경로계수로 나타내고 있다. 초기시작 집단 모델을 살펴보면, 모델 적합성 지수인 카이제곱 값(Chi-square(3)=1.34,  $p=0.72$ )과 RMSEA 값(0.00)은 이 모델이 자료에 매우 잘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기시

작 집단 모델의 경우 가족의 유대는 오직 중기청소년기(-0.27,  $p < .001$ )에 직접적인 부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후기시작 집단 모델의 경우도 카이제곱 값( $\text{Chi-square}(3)=5.12, p=0.16$ )과 RMSEA 값(0.07)은 모델이 자료에 잘 부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후기시작 집단 모델에서는 가족의 유대가 중기청소년기(-0.18,  $p < .05$ )와 말기 청소년기(-0.49,  $p < .001$ )에 직접적인 부적 효과만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후기시작 집단의 가족유대와 비행의 자기회귀모델(N=152)

예측 변수	응답 변수					
	유대 1	비행 1	유대2	비행2	유대3	비행3
연령	0.00	0.10	0.10	0.04	0.01	-0.16
인종	-0.30	0.00	-0.10	-0.12	-0.01	0.00
지역	0.01	0.05	-0.03	-0.03	-0.12	0.04
수입	0.03	-0.11	-0.12	-0.04	0.14	0.08
유대1		-0.18 *	0.54 **			
비행1			-0.02	0.13		
유대2				-0.49 **	0.34 **	
비행2					0.08	0.19 *
유대3						-0.05

인종(0= 백인, 1=비백인), 지역(-1=농촌, 0=도시근교, 1=도시)

$\chi^2(3)=5.12(p=.16), RMSEA=0.07$

\*  $p < .05, ** p < .001$

## V. 결론 및 토론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과정에서 비행의 지속성과 변이성을 설명하는 잠재적 특성 시각과 생애과정 시각의 논의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행의 시작 시기와 가족유대가 비행의 발달 과정의 변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행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는데 비행의 시작 시기는 중요한 변이가 되지만 연령 효과(age-effect)의 특성 역시 존재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잠재적 특성 시각은 연령에 따른 비행 또는 범죄의 관계는 내재적이며 변치 않는 특정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요인은 이 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Gottfredson and Hirschi, 1986; 1988). 반면에 생애과정 시각은 연령과 비행 또는 범죄와의 분포는 행동특성에 따라 변이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Moffitt, 1993; Patterson et al., 1992). 본 연구의 결과는 초기시작 집단과 후기시작 집단 간에 비행의 분포와 변이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초기시작 집단의 경우 비행 발달 유형이 중기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까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연령-범죄 분포의 유형과 일치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후기시작 집단의 경우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할 때까지 비행 비율의 변화 없이 초기시작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발달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비행의 시작 시기가 비행의 발달과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이가 된다는 생애과정 시각의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초기시작 집단의 비행 감소비율이 후기시작 집단의 비행 감소 비율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에 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시 비행의 궤적은 초기시작 집단의 경우 감소의 경향이 나타나며, 후기시작 집단의 경우 특별한 변화가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 연령의 변화에 따른 비행의 집합적 분포 내의 개인적인 변이가 다르다는 이 연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특징적인 유형이 발견된다.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비행정도가 높은 개인일수록 비행의 감소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인 범죄 특성을 가진 개인일지라도 연령의 변화에 의해 비행을 감소한다는 Gottfredson과 Hirschi (1990)의 연령-범죄 곡선의 경향을 지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행의 발달에서 가족의 유대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잠재적 특성 시각은 비행이나 범죄의 원인은 개인의 특성에 의한 것이므로 가족의 유대 특히, 청소년기의 가족의 유대는 비행이나 범죄의 변이를 설명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Bushway et al., 1999; Nagin and Paternoster, 1991). 반면에, 생애과정 시각은 비행발달 과정에서 가족 유대의 변이를 주장한다(Thornberry, 1987; Sampson and Laub, 1993).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의 유대는 초기시작 집단과 후기시작 집단 모두의 비행과정에 변이를 나타내고 있어, 생애과정 시각의 논의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행의 발달 과정에서 가족 유대의 영향력은 초기시작 집단과 후기시작 집단 사이에 차

이점이 발견된다. 두 집단 모두 가족 유대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특별한 가족 유대의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초기시작 집단의 경우 중기 청소년기에만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내며, 후기시작 집단의 경우 중기와 말기 청소년기에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유대는 후기시작 집단의 비행과정을 더 잘 설명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결과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기의 가족의 유대가 미치는 사회화 과정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Patterson과 Moffitt은 두 집단이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써 사회화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Patterson et al., 1992; Moffitt, 1993). 이 이론들은 초기시작 집단의 특징이 부적절한 사회화 발달 과정이라면, 후기시작 집단의 특징은 초기시작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사회화 발달 과정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후기시작 집단의 경우 초기시작 집단보다 가정의 유대가 더 효율적인 비행 억제 요인이 되거나, 질적인 측면에서 더 관습적인 사회화 과정이 이루어짐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두 집단 모두 초기 성인기에는 가족의 유대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제시한다. 이는 부모와의 유대가 비행이나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성인기로 갈수록 낮아진다는 결과(Thornberry, 1987)나, 성인기에는 범죄의 억제는 부모와의 유대보다는 직장이나 이성 관계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유대가 중요하다는 논의(Sampson and Laub, 1993)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생애과정 시각은 가족 유대와 비행이나 범죄와의 순환적 관련성을 가정하고 있다(Thornberry, 1987; Sampson and Laub, 1993).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가족 유대와 비행 간의 상호 호혜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유대가 다른 요인과 상호작용에 의해 비행이나 범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의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비행이나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친구들과의 관계이다. 즉 가족유대의 약화가 비행 친구들과의 교제를 촉진시키며 그 결과로 인해 비행이 초래될 수 있다(Elliott et al., 1985). 이와 더불어 가족유대와 비행친구들의 관계는 비행시작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다(Simons et al., 1994).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과 비행이나 범죄 발전에 대한 두 시각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자료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먼저 연령에 따른 범죄의 분포를 고려해 볼 때, 한국의 경우 연령-범죄의 곡선이 서구의 경험적 결과들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박철현(2001)은 연령-범죄 곡선의 정점연령이 서구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범죄의 시작 시기의 차이에 따른 범죄의 발달 유형 역시 한국의 경우는 서구의 결과와는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들(박철현, 2003; 이순래, 1995, 1996)이 공식적인 범죄통계, 수사자료, 범죄경력자료와 수형자들의 자기기입식 연구들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자료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와 같은 종단적 자료가 축적되고 있으므로 비행이나 범죄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활발해질 것을 기대한다. 둘째, 비행 시작 시기에 의한 잠재적 특성의 분류에 대한 한계이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적 연구들(Patterson et al., 1991; Patterson and Yoerger, 1993; Simons et al., 1994)에 따라 비행 초기시작 집단과 후기시작 집단으로 나누고 있는데, 비행이나 범죄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지속적인 만성 유형, 청소년기 제한형, 후기 청소년기 시작형 등의 다양한 변화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Nagin and Land, 1993; Nagin et al., 1995). 셋째, 비행이나 범죄 과정의 통제 요인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장과정에 따른 가족의 유대와 비행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청소년기의 친구관계의 영향력을 통제할 가운데 비행의 변화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Simons et al., 2001).

잠재적 특성 시각과 생애과정 시각의 형사 정책적 전략은 경력 범죄자들에 대한 무력화(incapacitation)와 교화(rehabilitation)로 대표될 수 있다. 잠재적 특성 시각은 소수의 만성적인 범죄인들에 의한 범죄가 전체 범죄의 상당수를 차지하며 이들은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구금을 통한 범죄통제의 방법을 사용하는 선택적 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의 정책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Gottfredson and Hirschi, 1986; 1990). 반면에, 생애과정 시각에서는 비행이나 범죄 발달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들에 대한 통제와 이들의 개선에 의한 행동 수정이 효율적인 형사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다(Tolan, 2004). 이와 같은 형사 정책적 전략에서 도출될 수 있는 청소년기의 비행이나 범죄통제에 대한 함의는 상황적인 범죄 통

제와 범죄성에 대한 통제이다. 다시 말해,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비행이나 범죄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시기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공식적인 통제에 초점을 두는 것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의 사회적 관계 개선을 통해 개인의 범죄성 발달을 억제하는 비공식적인 통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두 시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통제 요인은 청소년기 이전 유년 시절의 가정에서의 올바른 사회화이다.

## 참고문헌

- 박철현. 2003. “범죄경력 of 전문화:마코프-체인분석.” 『형사정책연구』 14(1): 243-273.
- 박철현. 2001. “한국의 연령-범죄곡선.” 『한국인구학』 24(2):149-177.
- 이순래. 1996. “소년범죄와 성인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 8: 39-63.
- 이순래. 1995. “범죄지속의 원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3: 39-64.
- Bushway, S., R. Brame, and R. Paternoster. 1999. “Assessing Stability and Change in Criminal Offending: A Comparison of Random effects, Semiparametric, and Fixed Effects Modeling Strategie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5: 23-61.
- Caspi, A. and Moffitt, T. E. 1995. “The Continuity of Maladaptive Behavior: From Description to Understanding in the Study of Antisocial Behavior.” In Cicchetti, D. and D. Cohen (Eds.), *Manu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Wiley.
- Catano, R. F., and J. D. Hawkins. 1996. “The Social Developmental Model: A Theory of Antisocial Behavior.” In Hawkins, J. D. (Eds.), *Delinquency and Crime: Current Theories*. 149-197.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ernkovich, S. A. and P. C. Giordano. 2001. "Stability and Change in Antisocial Behavior: The Transition from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Criminology* 39: 371-409.
- Elliott, D. S., and S. Menard. 1996. "Delinquent Friends and Delinquent Behavior: Temporal and Developmental Patterns." In Hawkins D., (Eds.), *Delinquency and Crime: Current Theories* 28 - 67.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lliott, D. S., D. Huizinga, and S. Menard. 1989. *Multiple Problem Youth: Delinquency, Substance Use, and Mental Health Problems*. Springer-Verlag. New York.
- Farrington, D. P. 2002. "Developmental Criminology and Risk-Focused Prevention." In Maguire, M., R. Morgan, and R. Reiner (Eds), *The Oxford Handbook of Criminology*. Gosport, Hampshire: Oxford University Press.
- Farrington, D. P. 1992. "Explaining the Beginning, Progress, and Ending of Antisocial Behavior from Birth to Adulthood." In McCord, J., (Eds.) *Fact, Frameworks, and Forecasts, Vol.3 in Advances in Criminological Theory*.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Farrington, D. P. 1986. "Age and Crime." In Tonry, M and N. Morris (Eds.) *Crime and Justice: An Annual Review of Research* 7: 189-25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lueck, S. and E. Glueck. 1950.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ottfredson, M. and T. Hirschi.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ottfredson, M. and T. Hirschi. 1988. "Science, Public Policy, and the Career Paradigm. *Criminology*" 26: 37-55.
- Gottfredson, M. and T. Hirschi. 1986. "The True Value of Lambda Would Appear to Be Zero: An Essay on Career Criminals, Selective Incapacitation, Cohort Studies, and Related Topic."

- Criminology 24: 213-233.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irschi, T., and M. Gottfredson. 1983. "Age and the Explanation of Cri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9:552-584.
- Jöreskog, K. G. and D. Sörbom. 2001. *LISREL 8 User's Reference Guide*. Second Edition.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Chicago.
- Kornhouser, R. 1978. *Social Sources of Delinquen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oeber, R. and Stouthamer-Loeber, M. 1986. "Family Factors as Correlates and Predictors of Juvenile Conduct Problems and Delinquency." In Tonry, M., N Morris (Eds), *Crime and Justice* 7:29-149. Chicago, Illino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Ardle, J. J. and R. Q. Bell. 2000. "An Introduction to Latent Growth Models for Developmental Data Analysis" In Little, T. D., K. U. Schnabel, and J. Baumert (Eds), *Modeling Longitudinal and Multilevel Data: Practical Issues, Applied Approaches and Specific Exampl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McCord, J. 1979. "Some Child-Rearing Antecedents of Criminal Behavior in Adult 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477-1486.
- Meredith, W. and J. Tisak. 1990. "Latent Curve Analysis." *Psychometrika* 55:107-122.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 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75-701.
- Moffitt, T. E. 1990. "Juvenile Delinquency and Attention-Deficit Disorder: Development Trajectories from Age 3 to 15." *Child development* 61: 893-910.

- Muthén, L. K. and B. O. Muthén. 2005. *Mplus User's Guide*. Third Edition. Los Angeles, CA: Muthén and Muthén.
- Muthén, B. O., and Khoo, S. 1998. "Longitudinal studies of achievement growth using latent variable modeling."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2): 73-101.
- Nagin, D. S., D. Farrington, and T. Moffitt. 1995. "Life-Course Trajectories of Different Types of Offenders." *Criminology* 33: 111-139.
- Nagin, D. S. and K. Land. 1993. "Age, Criminal Careers, and Population Heterogeneity: Specification and Estimation of a Nonparametric, Mixed Poisson Model." *Criminology* 31: 327-365.
- Nagin, D. S. and R. Paternoster. 1991. "On the Relationship of Past and Future Participation in Delinquency." *Criminology* 29:163-189.
- Paternoster, R., C. W. Dean, A. Piquero, P. Mazerolle, and R. Brame. 1997. "Generality, Continuity, and Change in Offending."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3: 231-266.
- Patterson, G. R., and K. Yoerger. 1993. "Developmental Models for Delinquent Behavior." In Hodgins, S. (Eds.), *Crime and Mental Disorder*. Newbury Park, CA: Sage
- Patterson, G. R., J. B. Reid, and T. J. Dishion. 1992. *Antisocial Boys*. Eugene, OR: Castalia
- Patterson, G. R., B. D. DeBaryshe, and E. Ramsey.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329-335.
- Raudenbush, S. W. and A. S. Bryk.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Second Edition.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Rogosa, D. R., D. Brand., and M. Zimowski. 1982. "A Growth Curve Approach to the Measurement of Change." *Psychological*

Bulletin 90:726-748.

- Sampson, R. J. and J. H. Laub. 1993. *Crime in the Making: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ampson, R. J. and J. H. Laub. 1990. "Crime and Deviance over the Life Course: The Salience of Adult Social Bon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609-627.
- Simons, R. L., W. Cho, R. D. Conger., and G. H. Elder 2001. "Quality of Parenting as Mediator of the Effect of Childhood Defiance on Adolescent Friendship Choices and Delinquency: A Growth Curve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 63-79
- Simons, R. L., C. Johnson, R. D. Conger, and G. Elder, Jr. 1998. "A Test of Latent Trait versus Life-course Perspectives on the Stability of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Criminology* 36: 217-242.
- Simons, R. L., C. Wu, R. D. Conger, and F. O. Lorenz. 1994. "Two Routes to Delinquency: Differences between Early and Late Starters in the Impact of Parenting and Deviant Peers." *Criminology* 32: 247-275.
- Thornberry, T. P. 1987. "Toward an interaction theory of delinquency". *Criminology* 25:863-892.
- Tittle, C. R. and H. G. Grasmick. 1998. "Criminal Behavior and Age: A Test of Three Provocative Hypotheses." *The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88: 309-342.
- Tolan, P. 2004. "Crime Prevention: Focus on Youth." In Wilson, J. Q., and J. Petersilia (Eds.), *Crime: Public Policies for Crime Control*. Oakland, CA: ICS Press
- Wahler, R. G., and J. E. Dumas. 1984. "Family Factors in Childhood Psychopathology: toward a Coercion Neglect Model." In T. Jacob (Eds.), *Family Interaction and Psychopathology*. New York: Plenum Press.

- West, D. J. and D. P. Farrington. 1973. *Who Becomes Delinquent?* London: Heinemann.
- Willet, J. B., and A. G. Sayer. 1994. "Using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to Detect Correlates and Predictors of Individual Change over Time." *Psychological Bulletin* 116:363-381.
- Wilson, J., and R. Herrnstein. 1985. *Crime and Human Natur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Wolfgang, M., R. Figlio, and T. Sellin. 1972. *Delinquency in a Birth Cohor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 Test of Two Different Perspectives on Delinquent Processes: A Comparison of Latent Trait and Life-Course Perspectives

Lee, Sang-Moon\*

This study examines two contrasting perspectives explaining the continuity and change of delinquency and crime from middle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Specifically, this study considers two issues: age effect and family bond influence. Latent trait perspective argues that age-crime curve is unique to delinquent population, whereas life-course perspective suggests that age-crime curve can vary by the different onset of delinquency. Latent trait perspective maintains that family bond is not major factor to determine delinquent trajectory because the cause of delinquency is underlying criminal propensity. In contrast, life-course perspective suggests that family bond is an important factor to explain delinquent trajectory since weaken family bond increases delinquency, which in turn weakens future family bond. 390 males from a longitudinal data set, National Youth Survey are used to test hypotheses derived from the two different perspectives. Considering age effects, the results indicate that a different onset of delinquency is an important factor to explain delinquent trajectory but a unique age effect still exists. The results support life-course perspective for the influence of family bond. Especially, the effect of family bond is stronger for later onset group than early onset group.

주제어 : 연령, 비행, 가족유대, 연령-범죄 곡선, 잠재적 특성시각, 생애 과정 시각, 성장곡선

Keywords : age, delinquency, family bond, age-crime curve, latent trait perspective, life-course perspective, growth curve

---

\* Full-time lecturer,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Youngsan University